

世界景氣動向과 77年 전망



徐 相 喆

△高麗大教授▽

中盤후 본격 成長期로

1975年 下半年부터 시작된 先進諸國의 景氣回復勢는 今年 上半期에 급속한 진전을 보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다시 원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의 回復期를 통하여 先進諸國間에는 物價, 失業率, 國際收支等에 관한 차이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國際通貨市場의 不安을 가져오고 있다.

今年 上半期에 先進諸國은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다. 이 기간에 있어서 景氣回復의 主導的 역할을 民間消費支出의 증대와 在庫投資의 급증이었으며, 이에 따른 輸出需要의 增加로 회복세가 他國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今年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民間消費支出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그 때문에 企業의 현재 설비 가동율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고 따라서 投資의 급격한 확대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완만해진 경기 회복 추세가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설비투자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적자 재정은 이미 한계에 도달된 국가가 많으며 또한 民間소비 지출의 增加에 의한 經濟成長을 무한정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으로 설비 투자의 부활 전망은 어떠한가? 여기서 우리는 세계 經濟의 앞날에 대한 밝은 전망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우선 美國이나 西獨의 경우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個人所得의 增加率은 物價 상승율의 거의 2배에 가까우며 民間貯蓄은 현재 전례없는 높은 수준에 있다. 企業에 있어서도 景氣回復

過程에서 발생하는 企業利潤의 급증으로 投資財源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의 억제로 長期金利가 계속 하락추세에 있으므로 設備投資에 한층 더 유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設備投資에 有利한 環境이 造成되고 있으므로 設備投資의 本格的인 復活은 時間問題라는 것이 현재의 지배적인 예측이다 따라서 今年 下半年에 나타난 완만한 回復勢는 앞으로의 世界經濟가 長期的으로 지속하는 成長期에 突入하기 위해 필요한 整備段階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77年度에는 주로 企業의 設備投資가 主動이 되어 世界經濟의 지속적인 成長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設備投資의 본격적인 復活은 1977년도 中期以後가 될 것이므로 年平均 成長率은 今年보다 약간 둔화될 것이며 1978년에는 成長率이 높아질 可能性이 많다.

OECD諸國의 成長率은 今年에 5.5~5.8%에서 77년에 5.1~5.2%로 약간 둔화될 전망이다. 國別로는 美國, 西獨, 프랑스, 캐나다 등이 약간 둔화된 成長率을 갖는 반면 今年에 인플레이 문제로 成長率이 가장 낮은 이태리, 英國과 日本의 成長率이 약간 증가될 것이다.

또 OECD諸國의 物價上昇率은 今年 水準이 대략 1977년에는 유지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主要國 政府들이 아직도 인플레이억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總需要管理政策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1次產品 價格도 今年에는 18% 引上 되었으나 77년에는 15%정도 上昇할 것이며 아직도 遊休設備가 많기 때문에 物價急騰의 要因은 없다고 본다.

世界的인 景氣回復과 동시에 貿易量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1974年을 頂點으로 1975年 3.4分期까지 계속 감소되어 모든 世界 貿易量은 今年에 약 10% 增加로 1974年 水準을 약 4%정도 초과할 것이며, 1977年度에도 계속해

서 약 8%의 增加가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OECD諸國 經濟는 景氣回復期의 輸入需要增加로 今年에는 輸入增加率 17% 輸出增加率 13%가 될 전망이다.

한편 OPEC의 經常收支赤字는 계속 增加될 전망이다. 非產油開發途上國은 1975년도와는 달리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차관도입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輸入增大가 위축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經常收支赤字는 1976년부터 크게 축소될 것이다. 1974~75년에 있어서 OECD貿易收支의 개선은 OPEC赤字幅의 감소와 외국 차관에 의한 開途國의 輸入增加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76~77년에는 이와 같은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OECD諸國의 國際收支壓迫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先進諸國의 보도수역정책이 상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까지 분석한 世界經濟의 景氣 展望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의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75년 後半期부터 시작된 景氣回復은 이제 世界經濟의 지속적인 成長期로 突入하여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世界經濟環境下에서는 단기적인 輸出增大 목표 달성을 지양하고 設備投資를 통한 供給能力 확대와 産業構造 개편을 同時에 達成할 수 있는 絶好의 機會를 적극 활용해야 될 것이다.

둘째 77년부터 世界的인 設備投資 붐이 본격화 됨에 따라 資本財輸出市場의 전망이 한층 더 밝게 될 것이다.

세계 先進諸國의 體驗에 나타난 바와같이 景氣回復의 現段階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인플레이 억제가 시급하다는 點이다. 經濟成長率 增加로 인플레이 惡化를 초래하게 되면 長期的인 안목에서 오히려 成長率을 크게 둔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